2023 무주교육장배 태권도 페스티벌 개최

지난 4일 무주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이 주최하고 무주군태권도협회(회장 이도우)가 주관하는 '2023 무주교육장배 태권도 페스티벌'이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을 실시하는 대회에 김승기 교육장을 비롯하여 유호연 부군수, 고봉수 전북태권도연합회장,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송재호 무주군체육회장 등 다양한 태권도 및 지역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2023 무주교육장배 태권도 페스티벌 대회는 겨루기, 품새, 격파 3종목에 총 247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그동안 학교에서 갈고 닦은 태권도 기량을 선보였다.

태권도 페스티벌을 맞아 운영한 무주군태권도시범단의 공연은 대회에 참가한 초등학생들과 지도교사, 학부모 등 약 350여명의 호응과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태권도의 성지인 무주에서 아이의 실력을 볼 수 있어서 기뻤고, 특히 태권도의 날에 무주 아이들이 태권도로 하나되는 모습이 좋았다. 대회를 준비해주신 교육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승기 교육장은"교육지원청 담당자뿐 아니라 주관해주신 무주군태권도협회, 지도해 주신 모든 선생님과 학부모님께서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도와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호원대 교양교육원,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 시상

호원대학교 교양교육원은 지난 4일 제15회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는 재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영어로 이야기함으로써, 개인별 역량 점검 및 영어 말하기 능력을 발휘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됐다.

이 대회에 참가한 재학생은 총 7명으로,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이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동윤찬(항공관광학과 4년) 학생은 "이번 대회를 위해 영어로 원고를 준비하며 외우고 시연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며 "앞으로 더욱 도전적인 정신으로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수의대, 수혼제 통해 실험동물 넋 기려

6일까지 실습 ·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 추모키로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박상열)은 지난 4일 익산 특성화캠퍼스 수혼탑 앞에서 실습 및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기리는 수혼제(獸魂祭)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혼제는 제암 백영기 장학회의 지원으로 수의대 학생회(회장 김재훈)가 주관한 가운데 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수의대 교수와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수혼제에서는 박상열 학장의 추도사와 김재훈 학생회장의 추모문 낭독, 그리고 헌화 등이 진행됐다.

특히 수의대 학생회는 6일까지 3일 동안 애도기간을 정해 자발적으로 희생 동물들을 추모하기로 했다.

박상열 학장은 "동물의 존엄성은 영구불변의 진리로 우리 수의과대학 구성원이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며 "수혼제를 통해 교수와 학생 모두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학생회장은 "실험동물의 넋을 기리며 동물의 희생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른 자세로 배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강주호 학생(본과 3학년)은 "희생된 동물들을 기억하고 고마움과 미안함을 마음속에 새기며, 앞으로 배움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 진안군 공무원 · 주민 함께 기탁한 성금에 감사 전해

익산시는 진안군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기탁한 성금에 감사를 표했다.

진안군 전춘성 군수와 공무원, 주민 박업순, 백부희씨가 함께 5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349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기부한 성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한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익산시 저소득가구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같은 전북도민으로서 익산시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매우 안타까워 직원들과 한마음으로 성금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전했고, 주민 박업순, 백부희씨도 "성금을 지원받으시고 마음에 위로가 되고 일상생활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진안군수님까지 직접 익산시에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해 주시니 마음이 든든하고 매우 감사드린다"며 "함께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을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진안군 동향면 기관단체장협의회에서 성금 213만원 기탁 등 익산시와 진안군의 남다른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공무원 갑질 예방 교육… 6급 이상 대상

남원시는 지난 4일 직장 갑질 119 오진호 집행위원장을 초청, 1층 강당에서 6급 이상 관리직급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강에서는 오 강사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판단 기준과 대응 매뉴얼 제작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실제 갑질 사례와 설문 조사 통계 등을 활용하여 직장 갑질의 특성, 판단 기준, 대응조치와 사전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오 위원장은 조직 내 갑질 예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안전과 인권을 관리하는 적극적인 관리자", "소통을 통한 조직 내 금지와 합의 규정 만들기"로 대표되는 간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갑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내 시스템의 문제로써 갑질 예방을 위해서 관리직급 공무원은 가해자 되지 않기에서 직원의 안전과 인권을 관리하는 적극적 역할 찾기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관리직급 공무원이 직원을 대할 때는 명확하게 소통하기, 신뢰하고 신뢰 얻기, 감정 섞지 말기, 진심으로 듣기, 성장을 위한 피드백하기 등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남 무안군, 남원서 보건 복지사업 벤치마킹

남원시는 5일 전남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관계 공무원(40명)이 남원형 찾아가는 보건복지 벤치마킹을 위해 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남원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보건 복지사업 추진상황 전반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우수사업, 23개 읍면동 특화사업, 민관협력 행복실림단,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현황 등에 대해 소개했다.

무안군 박상규 위원장은 "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우수사업, 읍면동 특화사업을 무안군에도 접목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무안군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비만 BYE, 건강 HI' 운영 성황리 마무리

정읍시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인 '비만 BYE, 건강 HI' 운영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6월 대상자를 모집해 사전검진 및 대상자 선정방식을 통해 총 20명의 참가자를 선발했다.

대상자들은 민간 트레이닝센터와 연계해 소그룹별 기구운동법, 운동처방사의 스트레칭 및 홈트레이닝법 뿐 아니라 영양사의 식단관리법등 영양교육도 병행해 운영했다.

10주간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가자의 71.4%가 체중감소, 57.1%는 체지방량 감소를, 참여자의 85.7%는 허리둘레가 감소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기부천사들 추석맞이 물품기탁 이어져

KBIZ중소기업중앙회 사랑나눔재단(전북지역본부장 변재용)이 추석을 맞아 75만 원 상당의 명절음식키트 5박스를 용지면 애린양로원에 전달해 달라며 김제시에 기탁했다.

이번 명절음식키트에는 △쇠고기 △당면 △동태포 △센베이 과자 등으로 구성되어, 용지면 애린양로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지역본부 변재용 부장은 "양로원 시설 어르신들이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외롭지 않게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KBIZ중소기업중앙회 사랑나눔재단은 6월 관내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온누리상품권 4백만 원을 기탁, 7월에도 재해물품꾸러미 100박스 9백만 원 상당을 관내 호우피해 저소득층에 전달한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